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1500만 관광객 시대' 청신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음 3월 19일) 제32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신재생 연계 ESS 〈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성 강화 '첫 발'

완주 테크노밸리서 평가센터 기공식… 471억 투입

센터 운영 본격화되면 절연 등 6대 안전기준 개발

전북도·완주군·한국전기안전공사가 상생 협력을 통해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 ESS 안전성 평가센터 기공식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완주군 등 지역 관계자 및 관련 산업계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사업비 471억원이 투입되며 총 부지면적 1만 6,654㎡(5,000평)에 지상 4층 규모로 구축된다. ESS 안전성 시험 공간을 비롯한 연구·교육시설 및 ESS(8MW), 태양광(1MW), 연료전지(400kW) 등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올해 센터동을 시작으로, 내년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등 주요 시설들이 완공돼 오는 2025년에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ESS 원격 안전진단 기술과 안전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이 본격화할 경우 ESS 화재조사위원회 등에서 언급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내부저항과 절연 등 6대 안전기준 개발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연계된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5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ESS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4일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 ESS 안전성 평가센터 기공식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일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김성주·양경숙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특별한 전북'

전북도,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사전 예약 통해 어린이·가족 등 2000여명 참여

요리·놀이 등 7개 분야 72개 체험프로그램 진행

도내 아동복지시설 소속 어린이들도 초대해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양경숙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한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도는 당일 행사에 체험 부스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만 입장을 허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을 넘어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많은 어린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 전북도는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하고, 매일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어린이 남·여 2명이 직접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특별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상설마당(체험관 내 상설 프로그램), △창의마당(미술·VR 체험 등), △정보마당(도내 기관 프로그램) 등 7개 분야의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도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달의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6일 도내 아동복지시설 소속 어린이 130여명을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특별 초대해 페이스페인팅, 공연, 상설체험, 요리교실 등을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직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만을 생각하며 지은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 곳곳에서도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려 시·군 지역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재훈 기자

카자흐 알마티 주와 우호협력 시동

김관영 도지사, 마랏 주지사와 교류의향서 체결

내달 전북 전통문화공연 등 선행 교류 본격 추진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에 시동을 걸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마랏 일로시조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지사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그동안 국제교류 다변화 차원에서 중장기 교류확대 전략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와의 교류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공을 들여 왔으며 주지사가 전북도와 중점 교류 분야인 농업, 관광, 기업 국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3일과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뒤 김제 스마트팜 혁신 밸리,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며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환경과 관광정책을 직접 살펴본 뒤 교류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10만여명을 따뜻하게 맞아줘 역사적, 민족적으로 연대의식이 잠재된 곳이자 한국의 중앙아시아 최대교역국, 최대투자대상국으로 꼽히는 국가이다.

또한, 이날 교류의향서를 맺은 알마티 주는 인구 200만 명에 카자흐스탄의 경제상업 중심지로 농업, 공업, 무역업 등이 고루 발달돼 있어 전북도와 농업,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리적인 교류협력사업이 기대될 뿐 아니라 현재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코나예프와 새만금이 연계해 상생 발전 방안도 추진해 볼 만한 지역이다.

전북도와 알마티 주는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관광문화, 농업, 산업, 인적자원 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해 본격적인 결연을 맺기로 했다.

도는 우선 6월 알마티 주의 협조로 주 청사 현지에서 전북의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전북도 홍보와 고려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도는 또 올 12월 개관을 목표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도립미술관과 함께 카자흐스탄 현대미술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 발족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전담팀 논의를 시작했다.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은 도의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담팀을 중심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수시 회의를 개최해 후백제 본향인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의 첫 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범위와 시행 가능한 우선 사업 발굴, △전담팀내 역할분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후백제 도읍이 위치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완주 봉림사지 등 다수의 후백제 유적이 산재해 있다. /김재훈 기자